삶 품은 사찰에 신뢰 세우는 토대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④ 율 조문에 나타난 중매와 포교 제언

yo pana bhikkhu sañcarittaṃ samāpajjeyye itthiyā vā purisamatiṃ purisassa vā purisamatiṃ vā itthīmatiṃ jāyattanevā jārattane vā antamaso taṃ khaṇikāya' pi, saṅghādiseso.

若比丘往來彼此媒嫁 持男意語女 持女意語男 若爲成婦事 若爲私通乃至須臾頃 僧伽婆尸沙.

어떠한 비구라고 할지라도 남녀의 중매를 하되, 남자의 뜻을 여자에게 전달하거나 여자의 뜻을 남자에게 전달하여 결혼 혹은 사통을 성사시키려 한다면, 비록 그것이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승잔죄에 해당한다.

– 비구계 승잔(僧殘)법 제5조 매가(媒嫁) –



출가자들이 계를 받을 때 비구는 250가지 조문을, 비구니는 348가지 조문을 받고 지킬 것을 서원하며 다짐한다. 이 가운데 중매 관련 조문은 중매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승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69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고불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나는 절로', 중매 아닌 포교 일환일 뿐

불교의 출가는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선택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다. 출가는 출가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주변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적 출가는 출가생활을 견딜 수 없고, 더욱이 율 조문의 실천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출가의 선택은 자발적일 수밖에 없다. 출가자에게 있어서 율의 실천은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워 피하거나, 율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오히려 붓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실천하며 수행하는 것이 출가자의 올바른 생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서 붓다의 가르침과 대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경우 계를 실천할 것인지, 범할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한다.

최근 유행처럼 생겨난 '나는 절로'라는 포교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절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미혼 남녀의 연애와 커플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나는 SOLO'의 불교판 포교 프로그램이다. '나는 절로'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하는 종단의 최신 포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각지의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나는 절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사찰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간자의 역할로 스님들이 관여돼 있기도 하다.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출가자들이 계를 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물론 포교 프로그램에 있어서 출가자가 직접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한 중매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참가자들 사이의 관계에 출가자가 개입하는 순간 자칫 중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조금 넓은 의미에서 율의 조문과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매, 바라이죄 다음의 승잔죄에 해당

출가자들이 수계(受戒) 시 비구는 250가지 조문을, 비구니는 348가지 조문을 받고 지킬 것을 서원하며 다짐한다. 수계한 조문을 출가자가 범(犯)하게 되면 재가자들은 파계승으로 생각하고, 승가에서 추방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수계한 하나의 조문이라도 범하면 파계승이 되고, 이것은 곧 승가에서 추방돼야 하는 것으로 불교 신자들은 많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붓다께서는 출가자가 조문을 범했다고 해서 그 처벌로 승가에서 무조건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율의 조문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승가 구성원의 처벌이 기록된 율장은 출가자의 잘못된 행위의 범계 유무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율장에 근거해 출가자의 범계 행위에 따라 무겁고 가벼운 징계의 기준을 정하였다.

율장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승가에서 추방이 되는 바라이죄가 있다. 바라이죄는 출가자가 범하는 순간 바로 승가에서 추방이 되는 가장 무거운 죄이다.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는 승잔죄이다. 승잔죄는 승가에 남아서 근신 처분을 받는 죄인데, 오늘 이야기 주제인 중매가 중죄인 승잔에 포함이 된다. 승잔죄 다음으로는 가벼운 처벌의 죄로서 범계한 비구는 다른 비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가 되며, 청정한 출가자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MZ세대 포교 프로그램 '나는 절로'
출가자 개입 중매로 오인 소지 있어
승가 전체 비난 확대 막고자 계율로
재가 믿음·존경 일으키는 지계 실천 要

승가 권위 실추 막기 위한 조문 제정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주는 중매가 출가자들에게 있어서 중죄가 된 까닭은 조문 제정의 인연담에 잘 나타난다. 제정 인연을 살펴보면, 우다이(Udāyi)라는 비구의 중매를 통해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부부가 불화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대방 집안을 비난하면서 최후에는 중매자인 우다이 비구를 비난했다.



지난해 10월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나는 절로'에서 참가자들이 차담 데이트를 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우다이의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들이 우다이뿐만 아니라 승가를 비난했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이들은 우다이 비구를 지지하게 되면서 붓다는 비구들에게 중매를 금하는 학처(學處, sikkhāpada)를 제정하게 된다. 이는 붓다와 불교가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승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라는 것이다. 즉, 붓다는 승가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계율을 제정하셨다.

nanu mayā moghapurisa anekapariyāyena virāgāya dhammo desito no sarāgāya visaṃyogāya dhammo desito no saṃyogāya anupādānāya dhammo desito no saupādānāya.

何以故 我無數方便說斷欲法 斷於欲想滅欲念 除散欲熱越度愛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실로 나는 많은 방법으로 탐욕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탐욕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결박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결박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집착의 여읨을 위해 법을 설한 것이지 집착을 취하라고 설한 것은 아니다.

출가자 개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승가 전체가 비난을 받을 경우, 붓다께서는 바른 수행자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며 출가자들을 경책하신다. 붓다께서 출가자들을 경책하는 까닭은 승가의 권위는 출가자 개인의 위의(威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계율에 의해 위의를 지니고 수행하는 출가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존경하고 믿음을 내기 때문이다. 출가자의 위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마승비구를 통해 지혜제일 사리불이 불교에 귀의한 것과 같이 출가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세상의 존경과 귀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출가자는 재가자의 비난으로부터 주의하며 위의를 지키며 생활한다.

세간 관심보다 깨달음 방향 보여야

포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혹여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경우 불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사회에서 주목받는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포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교는 재가자들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 자칫 출가자 한 명에게 쏟아진 비난이 승가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교 대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가자들이 지계와 범계의 경계에서 벗어나 더 많은 인연이 불교와 맺어질 수 있도록 MZ세대들의 작은 결혼식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둘째, 생로병사의 가르침을 회향할 수 있는 생전 장례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찰을 활용해 포교하는 방법이다. 셋째,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계율에 관해 널리 알리는 것 역시 그 자체가 재가자들에게 믿음과 존경을 주는 최고의 포교 방법이다.

사찰은 붓다의 가르침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새로운 시작의 축복과 삶의 정리를 위한 위로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간소한 의례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설하고, 출가자의 지계 실천과 여법한 모습을 통해 재가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존경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계의 테두리 안에서 여법한 출가자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 지계의 노력은 결국 재가 신자들로부터 믿음과 존경을 일으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8563-2356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